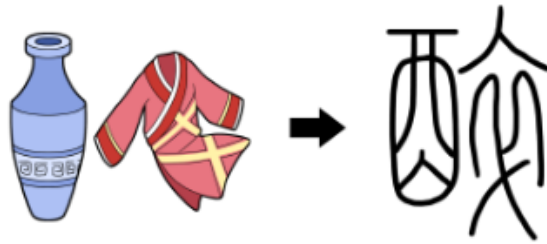


3(2)
-
431

회의문자①



醉

취할 취:

醉자는 '취하다'나 '(술에)빠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醉자는 酉(닭 유)자와 卒(군사 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酉자는 술병을 그린 것이다. 卒자는 고대에 졸병들이 입던 옷을 그린 것으로 옷 가운데에는 X자가 표시되어 있다. 졸병이란 계급이 가장 낮은 군사를 말한다.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에 卒자에는 '죽다'나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다. 醉자는 이렇게 '끝내다'나 '죽다'라는 뜻을 가진 卒자에 酉자를 결합한 것으로 술을 "(죽을 때까지)마시다"나 "죽을 만큼 술에 취해있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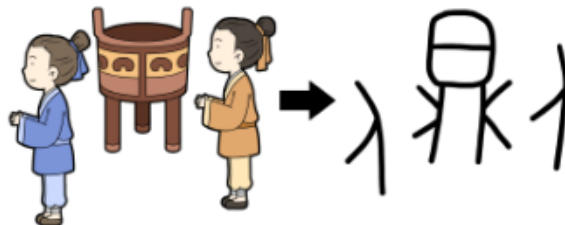
소전

醉

해서

3(2)
-
432

회의문자①



側

곁 측

側자는 '곁'이나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側자는 人(사람 인)자와 則(법칙 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側자의 금문을 보면 鼎(술 정)자 옆으로 두 개의 人자가 𠂆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술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것이다. 側자는 이렇게 술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곁'이나 '가까이'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鼎자가 貝(조개 패)자로 바뀌게 되었고 발음을 위해 則자가 쓰이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𠂆𠂆

금문

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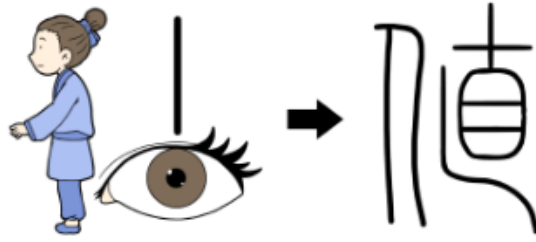
소전

側

해서

3(2)
-
433

회의문자①



值

값 치

值자는 '값어치'나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值자는 人(사람 인)자와 直(곧을 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直자는 目(눈 목)자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곧바로 보다'라는 뜻이 있다. 值자는 본래 '때를 맞이하다'나 '만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이다. 그러니 值자는 '곧바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直자에 人자를 더해 '(사람을)바로 만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에 '만날 만하다'나 '만날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와 같은 식으로 뜻이 변하면서 지금은 '값'이나 '값어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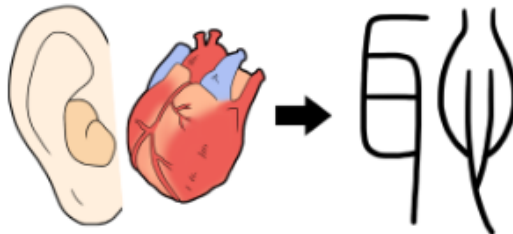
소전

值

해서

3(2)
-
434

회의문자①



恥

부끄러울
치

恥자는 '부끄러워하다'나 '부끄럽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恥자는 耳(귀 이)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니 心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귀'를 그린 耳자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恥자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얼굴이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진 글자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恥

소전

恥

해서

3(2)
-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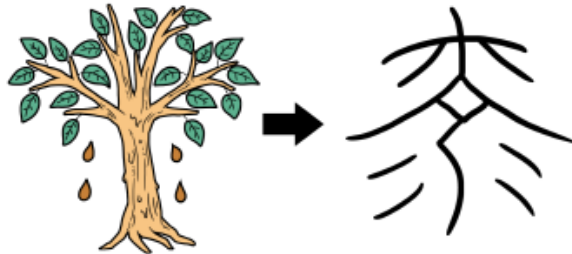
稚

어릴 치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벼화(禾 → 곡식)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작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隹(추)로 이루어짐. 작은 벼→어리다의 뜻.

3(2)
-
436



회의문자①

漆

울 칠

漆자는 '옷'이나 '옷나무 진', '검은 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漆자는 水(물 수)자와 𣎵(옷 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𣎵자는 가지가 뻗어있는 옷나무를 그린 것으로 금문까지만 하더라도 '옷'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옷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水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漆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옷은 색이 어둡다 하여 '검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𣎵

금문

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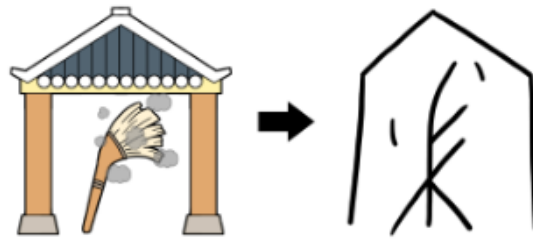
소전

漆

해서

3(2)
-
437


회의문자①



浸

浸자는 '잠기다'나 '담그다', '적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浸자는 水(물 수)자와 帚(비 추)자,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帚자는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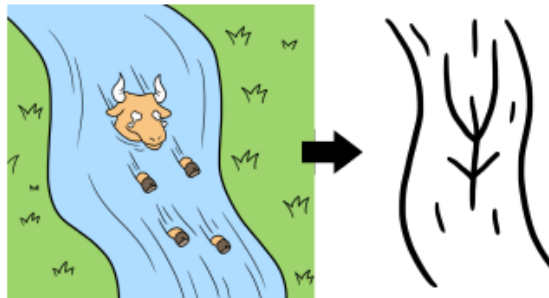
잠길 침: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빗자루(帚)를 손(又)에 쥐고 있는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水자가 더해지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38

회의문자①



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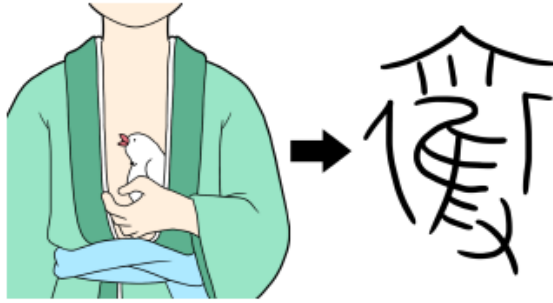
沈자는 '잠기다', '가라앉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沈자는 水(물 수)자와 宀(망설일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沈자의 갑골문을 보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소가 그려져  있었다. 홍수로 소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소전으로 넘어오면서는 소 대신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목에 칼을 찬 사람은 죄수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沈자는 강물에 죄수를 수장시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잠길 침(:) |
성(姓)
심: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39

회의문자①



奪

빼앗을
탈

奪자는 '빼앗다'나 '잃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奪자는 大(클 대)자와 隹(새 추)자, 寸(마디 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奪자의 금문을 보면 大자가 아닌 衣(옷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奪자는 본래 품 안에 있는 새를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새장도 아닌 옷 안에 새를 품고 있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奪자는 품 안에 있는 새가 쉽게 도망간다는 의미에서 '잃다'나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빼앗다'나 '약탈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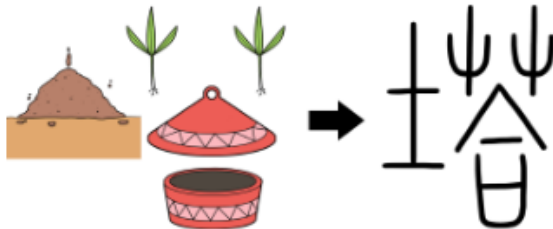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3(2)
-
440

형성문자①



塔

탑 탑

塔자는 '탑'이나 '증집', '사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塔자는 土(흙 토)자와 答(종종 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答자는 '답→탑'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塔자는 사찰에 있는 탑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 부처님의 형상은 알려지지 않은 채 들어왔다. 그래서 열반하신 부처님의 사리를 탑에 봉안해 모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탑의 시초이다. 그러니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축조물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탑은 인도에 존재했던 무덤 양식에서 기원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유골을 매장한 무덤'이라는 뜻에서 스투파(stupa)라고 했는데, 塔자는 이 '스투파'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소전

해서